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 적용 경험*

김 영 해¹⁾ · 김 현 수²⁾ · 조 영 란³⁾

1)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부산 죽성초등학교 보건교사
 3)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간호학과 시간강사

= Abstract =

Experience of School Health Instructors in the Application of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Kim, Young-Hae¹⁾ · Kim, Hyun-Su²⁾ · Cho, Young-Ran³⁾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School Health instructor, Jukseong Elementary School, Busan
 3) Full-time Researcher, Department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school health instructors in applying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15 health instructors working in elementary schools in Busan. Data were collected from Dec. 1, 2004 to Mar. 10, 2005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0.0. **Results:** Most of the health instructors had knowledge about CAM. Among the various CAM methods, acupuncture was the most widely known at 78.6%. While 53.5% had no experience in CAM education, 46.5% had been trained. Slightly over half (52.1%) had used CAM at school and based their decision on personal experience. As to applicability of CAM at school, 72.1% thought CAM was applicable, and 78.7% of this group considered alleviation of symptoms and assistance in the treatment process as the reasons for their answ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ponses as to the applicability of CAM according to age ($p=.002$), work experience ($p=.004$) and educational background ($p=.002$). **Conclusions:**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on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o assist school health instructors to plan nursing interventions using CAM which are individualized and practical

Key words :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School health instructors

주요어 : 보완대체요법, 보건교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for two years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교신저자 : 조영란(E-mail: youngrancho@yahoo.co.kr)

투고일: 2007년 1월 6일 심사완료일: 2007년 7월 1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Young-Ran(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1-10, Ami-dong, Seo-gu, Busan 602-739, Korea
 Tel: 82-51-240-7769 Fax: 82-51-248-2669 E-mail: youngrancho@yahoo.co.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급성기 사망률은 감소되고 있지만 질병양상은 만성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함으로써 의료제공자는 물론 수요자들까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Newswweek, 2002).

보완대체요법은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약물, 복잡한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초점을 둔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불만과 높은 의료비,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의료권 밖에서 진정한 안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방적, 치료적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시장에서 전통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보완대체제로 떠올라 의학적 다원주의를 형성하고 있다(Astin, 1998).

현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 지는 것은 인간의 온갖 질병과 고통을 자연 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해 주고 복원시켜주는 고유한 자연 의학적 개념과 원리 때문이지만(Oh, 1998),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의료계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학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미국에서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Wayne, 1997; Lee, 1997).

미국의 경우, 1990년 한 해 동안 1,539명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지 이상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8%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여 1997년 42.1%, 1998년 51.0%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1998; Astin, 1998). 이러한 미국민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증가와 더불어 1992년 대체의학국이 설립되어 이 때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UCLA, Harvard, New York, Johns Hopkins 의과대학 등 미국 의과대학의 64%(Daly, 1997; Wetzal, Eisenberg, & Kaptchuk, 1998)와 간호대학의 24.3%가 보완대체요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Kwak, 2001).

한국에서는 1997년 1,5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대상자의 61%가 한약, 침술, 뜸, 식이요법 등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Jung, 1997), 1999년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79.9%의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었다(Yoo, Ro, Han, & Lee, 1999). 이처럼 일반인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환자 진료 및 간호 시 정통의학과 보완대체요법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Borkan, Neher, Anson, & Smoker, 1994).

초등학교에서도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아동의 경우, 침이나 사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미 이용한 학생이 눈에 띄고 있고, 그밖에 뜸이나 부황의 흔적이 눈에 띄는 교직원도 있어 실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구성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보완대체요법은 학교라는 제한된 의료서비스 환경 속에서 아동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질병 조기발견 및 질병예방 측면에서 보건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그 활용가치가 크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질적인 아동간호 행위이다(Ju, 1994).

그러나 보완대체요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적용하면서도 보완요법에 대한 부작용이나 윤리적, 법적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Hong, & Kim, 1994; Yeom, Park, & Jung, 1998). 또한 다른 일부의 보건교사들은 보완대체요법을 전문적 교육이나 과학적 체계적 지식이 아닌 대중매체나 주변사람을 통해 비과학적으로 인식하여 실제 적용하는데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등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양분된 견해를 나타내기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적용경험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는 의료인들과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 주로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Gu, 2002; Kilbey, 2005; Lee, 2004; Melisko et al, 2005; Park, & Lee, 2002)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보건현장에서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경험을 파악하여 장차 초등학교 보건영역에서 보완대체요법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개인적인 이용경험, 개인적으로 받은 교육경험, “학교보건실무”에서 적용한 경험 및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종류별 인식 및 이용정도)을 파악한다.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 교육경험(경험여부, 종류 및 경로)을 파악한다.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 적용경험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개인적인 이용경험, 교육경험, “학교보건실무”에서 적용한 경험 및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2004년 12월 현재 초등학교 보건교사이며, 근접모집단은 부산광역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전수인 280명 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은 미국의 국립대체의학 및 보완의학연구소(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사용한 분류 15개(침술, 뜸·부항, 테이핑요법, 요가, 명상, 단전호흡, 기도 및 심령치료, 무용·음악·미술치료, 아로마요법, 생약요법, 건강보조식품, 각종 식이요법, 추나요법, 마사지·지압, 기공)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 및 이용양상을 조사한 연구(Gu, 2002; Choi, 2002; Song, 2003; Lee, 2004)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체 개발한 문항을 간호학 교수 2인, 보완대체요법을 공부한 간호학 석, 박사 3인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보건교사 30명을 대상으로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3개영역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보건교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조사는 연령, 근무경력, 학력, 결혼 상태, 건강유지 방법,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및 교육경험에 대한 조사는 인식 정도, 인식 경로, 유사 개념, 문제점, 이용경험, 교육경험 여부, 교육경험 종류, 교육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경험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는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경험, 적용이유, 적용가능 여부, 적용가능 이유, 비적용 이유, 학교적용의 문제점, 15가지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별 인지 여부, 이용 정도, 학교적용 요법, 활용가능 종류로 구성하였다. 15개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별 이용정도는 ‘자주 이용’ 3점, ‘이용’ 2점, ‘거의 이용안함’에 1점을 배점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2월 1일 부터 2005년 3월 1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설문지법이었다. 자료의 회수

를 높이기 위하여 자가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배포한 자료 280부 중 총 231부가 회수되어 자료회수율은 82.5%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21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보완대체요법의 이용경험(인식, 이용정도)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경험(경험, 종류, 경로)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학교보건실무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적용경험과 적용가능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용가능성을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보건교사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15명으로, 연령은 ‘30-39세’가 46.5%로 가장 많았고, ‘40-49세’는 30.7%, ‘50세 이상’이 15.8%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나이는 40.7세였다.

근무경력은 ‘10~19’년이 38.1%로 가장 많았고, ‘9년 이하’가 33.5%, ‘20~29’년이 25.1%, ‘30년 이상’이 3.3%순으로 평균 13.9년이었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62.6%, ‘전문대졸’이 22.4% 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90.5%, ‘미혼’이 9.5%로 나타났다.

건강유지방법은 연구대상의 56.3%가 ‘운동’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특별한 방법 없음’이 27.9%, ‘정기 건강 점검’이 17.2%, ‘영양제 복용’이 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건강하다’가 51.7%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8.6%, ‘건강하지 못함’이 9.7%였다<Table 1>.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M±SD
Age (year)	Below 29	15	7.0	40.7±7.5
	30 ~ 39	100	46.5	
	40 ~ 49	66	30.7	
	Over 50	34	15.8	
Service career (years)	Below 9	72	33.5	13.9±8.5
	10 ~ 19	82	38.1	
	20 ~ 29	54	25.1	
	Over 30	7	3.3	
Education	College	48	22.4	
	University	134	62.6	
	postgraduate course.	32	15.0	
Marital status	single	20	9.5	
	married	191	90.5	
Healthy** maintenance method	Exercise	121	56.3	
	Periodical healthy medical examination	37	17.2	
	Medicine for promoting nutrition	37	17.2	
	Hot spring cure, Sauna half body bath	34	15.8	
	Dietary treatment	19	8.8	
	Herbal medicine	14	6.5	
	Others	11	5.1	
	None	60	27.9	
Recognition against health condition	healthy	111	51.7	
	Moderate	83	38.6	
	No Healthy	21	9.7	

** Multiple response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신문, TV, 잡지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서가 44.3%,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통해서 26.0%, '연수 등 교육기회'를 통해서 17.2%, '보완·대체요법 전문가'를 통해서 3.7%, '전문서적'을 통해서 2.8%, 인터넷을

통해서 2.3%였고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3%이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서 대상자의 38.2%가 '병원에서 행해지는 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생각하였고, 대상자의 35.8%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되지만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Table 2> Recognition against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21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Recognition course	Mass media(newspaper, TV, magazine)	95	44.3
	Family or circumference person	56	26.0
	Education chance(Educational training etc)	37	17.2
	Specialist of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8	3.7
	Specialty book	6	2.8
	Internet	5	2.3
	Never heard	5	2.3
	Self judgement	3	1.4
Concept (Recognition)	Different types of medical treatments	82	38.2
	Alleviating symptom	77	35.8
	Psychological support, improving wellbeing	25	11.6
	Assisting treatment	23	10.7
	Unscientific treatment	5	2.3
	Additional therapy	3	1.4
Problem	Low reliability of curative effects	87	40.5
	Unprofessional & unauthorized practices	58	27.0
	Risk of side-effects and complications	43	20.0
	Obstructive effects on medical treatment	17	7.9
	Unfixed price	8	3.7
	Others	2	0.9

있는 치료방법'으로, 11.6%는 '심리적 지지와 안위증진을 돕는 치료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의 문제점에 대해 대상자의 40.5%가 '과학적인 검증의 부족으로 치료효과가 의심된다'고 하였고, 27.0%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없고 현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하였으며, 20.0%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현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Table 2>.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개인적 인식 및 이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완대체요법 종류별 인식율은 침술이 7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사지·지압이 73.5%, 건강보조식품이 69.3%, 각종 식이요법이 69.3%, 뜸·부황 67.0%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의 개인적 이용 정도는 건강보조식품이 1.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침술이 1.51점, 마사지·지압 1.48점, 각종 식이요법 1.38점, 요가 1.25점 순이었으며 가장 이용정도가 낮은 요법은 무용·음악·미술치료로 0.55점이었따<Table 3>.

<Table 3> Recognition and usage of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215)

Classification	Recognition	Usage
	Frequency (%)	M±SD
Dietary supplements	149 (69.3)	1.53 ± 0.91
Acupuncture	169 (78.6)	1.51 ± 0.88
Massage/finger-pressure	158 (73.5)	1.48 ± 0.89
Dietary treatment	149 (69.3)	1.38 ± 0.90
Yoga	133 (61.9)	1.25 ± 0.97
Moxa cauterly · cupping	144 (67.0)	1.10 ± 0.89
Herbal medicine	107 (49.8)	1.03 ± 0.90
Meditation	125 (58.1)	0.91 ± 0.83
Hypogastric breathing	112 (52.1)	0.88 ± 0.88
Aroma therapy	112 (52.1)	0.87 ± 0.89
Taping therapy	100 (46.5)	0.78 ± 0.84
Prayes and Spirituality	67 (31.2)	0.72 ± 0.93
Chiropratic therapy	81 (37.7)	0.70 ± 0.78
Qi gong	60 (27.9)	0.63 ± 0.82
Art and dance therapy	91 (42.3)	0.55 ± 0.78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경험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은 교육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대상자는 53.5%,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6.5%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았다.

교육받은 보완대체요법의 내용은 '침술'에 관한 것이 66.0%, '테이핑요법'이 26.0%, '아로마요법'이 15.0%, 요가

5.0%, 기공 5.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주로 강연 및 교육기회를 통해서가 59.0%, 보완대체요법전문학회를 통해서가 34.0%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Educational experience against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21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Educational experience	No	115	53.5
	Yes	100	46.5
Education type*,**	Acupuncture	66	66.0
	Taping therapy	26	26.0
	Aroma therapy	15	15.0
	Yoga	5	5.0
	Qi gong	5	5.0
	Moxa cauterly · cupping	4	4.0
	Hypogastric breathing	3	3.0
	Meditation	2	2.0
	Chiropratic therapy	2	2.0
	Massage/finger-pressure	2	2.0
Education course*	Others	2	2.0
	Dietary supplements	1	1.0
	Lectures & training sessions	59	59.0
	Professional CAM agencies	34	34.0
	Healthy relation books	2	2.0
Others	5	5.0	

* n=100, ** Multiple response

보완대체요법의 적용 경험 및 적용가능성

● 보완대체요법의 적용 경험

보완대체요법을 학교보건실무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직접 적용한 '경험이 있다'는 대상자는 52.1%였으며, 적용한 '경험이 없다'는 대상자는 47.9%로 적용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학교보건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침술'로 72.3%이었으며, '마사지·지압'이 37.5%, '테이핑요법'이 13.4%, 건강보조식품 8.0%, 명상 5.4%, 단전호흡 5.4%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을 학교보건실무에 적용하게 된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51.8%가 '증상 완화와 치료 보조'를, 31.3%는 '본인 경험상 효과가 있으므로', 8.9%는 '학교내의 의료처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라고 답했으며, 특히 대상자의 8.0%는 '학교보건실무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의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보완대체요법 적용가능성

학교보건실무에서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보건교사의 72.1%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중 78.7%는 적용근거로 '증상완화, 치료보조의 효과'를 응답

<Table 5> Applicational experience against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21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Applicational experience	No	103	47.9
	Yes	112	52.1
Application type*,**	Acupuncture	81	72.3
	Massage/finger-pressure	42	37.5
	Taping therapy	15	13.4
	Dietary supplements	9	8.0
	Meditation	6	5.4
	Hypogastric breathing	6	5.4
	Dietary treatment	6	5.4
	Yoga	6	5.4
	Aroma therapy	3	2.7
	Qi gong	2	1.8
	Moxa cautery · cupping	2	1.8
	Chiropratic therapy	1	0.9
	Herbal medicine	1	0.9
	Prayes and Spirituality	1	0.9
	Art and dance therapy	1	0.9
Application motive*	Alleviating symptom, assisting treatment	58	51.8
	Personal experience	35	31.3
	School medical treatment action limit	10	8.9
	Subject person request	9	8.0

* n=112, ** Multiple response

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교 의료처치의 특수성’ 때문이 11.6%, ‘경험적 근거’는 5.8% 순이었다.

보완대체요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보건교사는 27.9%였으며, 그 이유는 ‘비합법적 의료행위’가 5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책임질 수 없음’이 26.7%, ‘과학적 근거 부족’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 가능한 종류로는 침술이 73.0%로 가장 높았고, 테이핑요법이 62.3%, 마사지·지압이 51.6% 순이었다.

보건교사들이 보완대체요법의 학교보건실무의 문제점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44.7%, ‘윤리적 법적 문제’가 36.3%, ‘학부모의 항의’가 12.1% 였다<Table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가능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학교보건실무 적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39세’가 54.2%로 적용가능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49세’가 38.3%로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4.159, p=.002$).

근무경력에는 ‘10~19’년에서 적용가능 하다 39.4%, 적용가능하지 않다 35.0%로 가장 비율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5.173, p=.004$).

<Table 6> Applicational possibility against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21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Applicational possibility	No	60	27.9	
	Yes	155	72.1	
Applicational possible Type*,***	Acupuncture	113	73.0	
	Taping therapy	97	62.3	
	Massage/finger-pressure	80	51.6	
	Aroma therapy	35	22.3	
	Yoga	26	16.8	
	Meditation	23	14.9	
	Moxa cautery · cupping	22	14.0	
	Dietary treatment	17	10.7	
	Art and dance therapy	17	10.7	
	Dietary supplements	11	7.0	
	Hypogastric breathing	11	7.0	
	Herbal medicine	2	1.4	
	Chiropratic therapy	2	1.4	
	Prayes and Spirituality	1	0.6	
	Qi gong	1	0.6	
Applicational reason*	Alleviating symptom, assisting treatment	122	78.7	
	Peculiarity of medical treatment disposal in the school	18	11.6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6	3.9	
	Empirical basis	9	5.8	
	Non-applicational reason**	Illegal medical treatment	31	51.7
Responsibility prohibition		16	26.7	
Lack of scientific verification		8	13.3	
Lack of time		4	6.7	
Others		1	1.6	
Expectation problems by application		Side effect	96	44.7
		ethical & legality issues	78	36.3
	Protest of parents	26	12.1	
	Others	10	4.7	
	Refusal of student	5	2.2	

* n=155 ** n=60 *** Multiple response

학력에서는 ‘대학졸업’이 적용가능 하다 66.2%, 적용가능하지 않다 53.3%로 가장 비율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2.993, p=.002$).

결혼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7>.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 적용 경험을 파악하여 보완대체요법이 학교보건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자의 경우, 초등학교의 수업시간 중에 각종 복통, 발열 및 염좌와 같이 흔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때 먼저 부모

<Table 7> Applicational possibility against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Yes		No		χ^2	p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Age (year)	Below 29	9	5.8	6	10.0	14.159	.002
	30 ~ 39	84	54.2	16	26.7		
	40 ~ 49	43	27.7	23	38.3		
	Over 50	19	12.3	15	25.0		
Service career (years)	Below 9	57	36.8	15	25.0	15.173	.004
	10 ~ 19	61	39.4	21	35.0		
	20 ~ 29	36	23.2	18	30.0		
	Over 30	1	0.6	6	10.0		
Education	College	25	16.2	23	38.3	12.993	.002
	University	102	66.2	32	53.3		
	postgraduate course.	27	17.6	5	8.4		
Marital status	single	16	10.5	4	6.9	0.622	.430
	married	137	89.5	54	93.1		
Recognition against health condition	No healthy	13	8.4	8	13.3	3.565	.168
	Moderate	56	36.1	27	45.0		
	healthy	86	55.5	25	41.7		

에게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응급실로 옮겨야 할 것인지를 판단한 후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임시방편적인 처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이 보건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간호학적 적용은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는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여 의학적 치료와 상호보완적으로 혹은 독자적인 간호중재로 학교라는 한정된 의료서비스 환경 내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직업적, 법적, 윤리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획득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실제 보건교사들이 학교구성원에게 어떤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정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보건교사들의 각 보완대체요법의 인식에서 침술에 대한 인식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사지·지압, 건강보조식품, 각종 식이요법 순이었다. 인식하게 된 주요 경로는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 가족이나 주변사람, 인터넷을 통해서가 72.5%로 많았는데 이는 전문서적이나 교육을 통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23.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연구한 Choi(2002)의 경우 64.9%, Song(2003)은 73.9%가 대중매체, 주변사람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며, 보건교사들이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지식

을 아직도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인 경로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교사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이 3점 만점에 1.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침술 1.51점, 마사지·지압 1.48점, 각종 식이요법 1.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2003)의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 순위가 식이요법, 수지침, 민간요법, 안마, 지압 순으로 조사된 것과 Lee(2004)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순위로 마사지·지압, 수지침, 건강보조식품, 찜질요법, 명상, 요가, 아로마요법으로 나온 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 중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침술, 건강보조식품, 마사지·지압 등임을 알 수 있다

침술은 기질적 변화 없이 기능적 통증이 있을 경우 큰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이 적고 최소화, 손쉽고 간단한 교육 등으로 활용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침술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 의학계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1997년 미국 FDA에서 침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보험수가체계에 포함시킨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Kim, 1999; Moon, 2003). 또한 마사지는 근육경련, 근육통, 피로회복 등의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육체의 이완작용과 더불어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어 시술자와 시술대상자의 상호유대감을 강화하여 증상이 보다 호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Kang, 2002). 테이핑요법 또한 갑작스런 외상으로 인한 근육이나 관절을 제한하고 고정하여 동통을 경감하고 더 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쉽게

이용되고 있다(Yang, 2003). 따라서 부작용이 적고 교육이 쉬운 침술, 마사지·지압, 테이핑요법 등은 안전하고 증상완화에 유용성이 높아 학교보건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46.4%가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2002)의 연구에서는 32.3%, Choi(2002)의 조사에서 37.8%로 나타나 다른 연구에 비해 개인적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실무에서의 의료 처치에 대한 한계 인식과 학생이나 교직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을 자주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 보완대체요법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보건교사들이 보완대체요법을 “ 학교보건실무 ”에서 적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2.1%로 나타났는데 이는 Damkier, Elverdam, Glasdam, Jensen & Rose(1998)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20%, Alexander & Hayes(2002)의 연구에서는 39%의 간호사가 병원 간호실무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보건실무에서 증상완화, 치료 보조의 역할과 이로 인한 부족한 의료적 처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장점으로 작용하기에 절반 이상의 보건교사가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비율은 보건교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67.9%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교사가 보완대체요법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학교 보건업무 담당자로서 보건실에서 학교 구성원에게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은 부작용이나 윤리적,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교사의 72.1%가 보완대체요법을 “학교보건실무”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작용, 윤리적 법적문제, 학부모의 항의 등을 들고 있어 학교보건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보였으며, 적용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가능성에서는 연령별로 ‘30~39세’가, 교육경력은 ‘10~19년 이하’에서 보완대체요법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이 대두되고 보급된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에서는 ‘대학 졸업’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을 들고 있고,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호의적인 환경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Kreitzer, Mitten, Harris, & Shandeling, 2002)는 연구와 유

사한 결과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보건교사는 가장 기초적인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능동적 의료 처치로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교육청 연수나 해당 보완대체요법학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하고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과학적으로 검증을 거친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과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졸업한 간호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완대체요법 적용경험을 알아봄으로써 학교보건실무에서 이의 올바른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부산시 초등학교 보건교사 280명중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 응답하고 회신해준 215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이다.

조사된 내용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개인적인 이용경험, 교육경험, “학교보건실무”에서의 적용경험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44.3%가 신문,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알았다고 응답하였다.
- 보완대체요법 종류별 인식은 침술이 7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마사지·지압이 73.5%, 건강보조식품이 69.3%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이용정도는 건강보조식품 1.53점, 침술 1.51점, 마사지·지압 1.48점 순이었다.
-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는 46.5%였으며 이들은 주로 ‘강연 및 교육 기회’ 59.0%, 보완대체요법전문학회 34.0%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침술에 대한 교육(66.0%)은 가장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테이핑요법 26.0%, 아로마요법 15.0%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52.1%로 조사되었고 이들이 적용하는 요법은 침술 72.3%, 마사지·지압 37.5%, 테이핑요법 13.4% 이었다. 적용 동기는 증상완화와

치료의 보조 역할이 51.8%,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가 31.3%였다.

- 보건교사의 72.1%가 학교보건실무에서 적용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들의 78.7%는 증상완화, 치료보조를 그 이유로 꼽았다.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들은 그 이유로 '비합법적인 의료행위'가 51.7%, '책임을 질 수 없다'가 26.7%였다. 학교에서 가능한 활용요법은 침술이 73.0%, 테이핑요법이 62.3%, 마사지, 지압 5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전체가 인식하는 문제점으로는 '부작용'을 44.7%, '윤리적 및 법적문제'를 36.3%로 생각하고 있었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적용가능성은 30~39세가 54.2%로 가장 높았고, 근무경력이 10~19년 이하에서 39.4%로, 대학졸업의 학력에서 6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앞으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초등학교의 주요 증상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보건실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학교보건실무"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Alexander, I. M., & Hayes, K. M. (2002). Alternative therapies and nurse practitioners: Knowledg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personal use. *Holist Nurs Pract*, 14(3), 49-58.
- Astin, J. (1998). Why patients use alternative medicine?: results of national study. *JAMA*, 279(19), 1548-1553.
- Borkan, J., Neher, J. O., Anson, O., & Smoker, B. (1994). Referrals for alternative therapies. *J Fam Pract*, 39(6), 545-50.
- Choi, H. R. (2002). *Nurses perception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Daly, D. (1997). Alternative medicine courses taught at United States medical schools: An ongoing list. *J Altern Complement Med*, 3(4), 405-10.
- Damkier, A., Elverdam, B., Glasdam, S., Jensen, A. B., & Rose, C. (1998). Nurse's attitudes to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patients. *Scandinavian Journal Caring Sciences*, 12(2), 119-26.
- Eisenberg, D. M., Davis, R. B., Ettner, S. L., Appel, S., Wilkey, S., Van, Rompay, M., & Kessler, R. C.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results of a follow-up national survey. *JAMA*, 280(18), 1569-1575.
- Gu, J. H. (2002). *Perception on alternative health care among nurses and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Inje University of Korea, Busan.
- Hong, C. S., & Kim, H. L. (1994). A study on the school health status and school health teacher's self-confidence in Taejeon and Chungnam. *Chungnam Medical Journal*, 21(1), 153-163.
- Ju, H. O. (1994). *A study of folk-remedy f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Pusan University of Korea, Busan.
- Jung, Y. S. (1997). *The survey on using alternative medicine in general population: A pilot stud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Dong-A University of Korea, Busan.
- Kang, H. H. (2002). *A study on Korean sport massage: An inquiry of future direction of sport massa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in Korea and cognition surve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lbey, J. (2005). The use of complementary therapy in nursing practice. *Nurs Times*, 101(18), 26-27.
- Kim, S. S. (1999). *Effect of Su-Jok therapy for reducing pain based on hand & foot body correspondence structur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Kookmin University of Korea, Seoul.
- Kreitzer, M. J., Mitten, D., Harris, I., & Shandeling, J. (2002). Attitudes toward CAM among medical nursing and pharmacy faculty and students: a comparative analysis. *Altern Ther Health Med*, 8(6), 32-3.
- Kwak, S. A. (2001). *A research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establishing courses of substitute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nursing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J. K. (1997). Health belief in Korea: Health seeking behavior and health promotion - alternative medicine. *JKMA*, 40(9), 1203-1207.
- Lee, J. M. (2004).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and percep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of medical worke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Daejeon University of Korea, Daejeon.
- Melisko, M. E., Hassin, F., Metzroth, L., Moore, D. H., Brown, B., Patel, K., Rugo, H. S., & Tripathy, D. (2005). Patient and physician attitudes toward breast cancer clinical trials: Developing interventions based on understanding barriers. *Clin Breast Cancer*, 6(1), 45-54.
- Moon, C. K. (2003). *Effect of hand acuapunctures on subjective symptom of menstruant pain in middle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Changwon University of Korea, Kyungnam.
- Newsweek. (2002). A mystery of Health in 21 Century, http://magazine.joins.com/etc/magazine_publish.asp
- Oh, H. G. (1998). The practice of alternative medicine in Korea. *JKMA*, 41(12), 1222-1228.
- Park, H. S., & Lee, Y. M. (2002). A study on use of

- alternative therapy in cancer patients. *Korean J Rehabil Nurs*, 3(2), 212-227.
- Son, H. M. (2002). Nurses'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J Korean Acad Adult Nurs*, 14(1), 62-72.
- Song, J. Y. (2003). *Perception on alternative medicine of nurses working at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Inje University of Korea, Busan.
- Wayne, B. J. (1997). Alternative medicine.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45(1), 34-37.
- Wetzel, M. S., Eisenberg, D. M., & Kaptchuk, T. J. (1998). Courses involv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t US medical schools. *JAMA*, 280(9), 784-787.
- Yang, K. H. (2003). *The effects of whole-body balance taping therapy on human body balance and pai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Daegu Hanny University of Korea, Kyungbuk.
- Yeom, S. G., Park, G. S., & Jung, Y. K. (1998). A field on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health center. *J Korean Soc School Health*, 11(1), 111-121.
- Yoo, H. J., Ro, E. Y., Han, O. S., & Lee, C. (1999).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complementary medicin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51(7), 738-746.
-